

닛신보의 해외 영어연수 제도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국제화의 물결과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는 컴퓨터의 보급으로 영어를 모르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그간 영어를 무시하거나 등한시하던 유럽의 자존심 강한 여러 나라에서도 영어는 필수 국제어로 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 중국에서조차 관광안내나 택시기사도 영어를 모르면 취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닛신보는 이러한 영어의 중요성을 깨닫고 젊은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해외영어연수제도(program of overseas english training : POET)를 제정하였다.

이 제도는 미국의 미시간주에 있는 공업도시인 디트로이트와 조지아주의 애틀란타시에 있는 브레이크(brake)부문의 생산공장을 이용하여 공장마다 2명씩 4명을 반년간 교대로 연간 8명을 파견하여 교육하는 독자적인 영어 연수 유학 제도이다. 대상자는 25 35세 정도의 후보자 중에서 본부에서 선발한다.